

자체강의 부족 · 수강신청 어려움 · 취업연계 부실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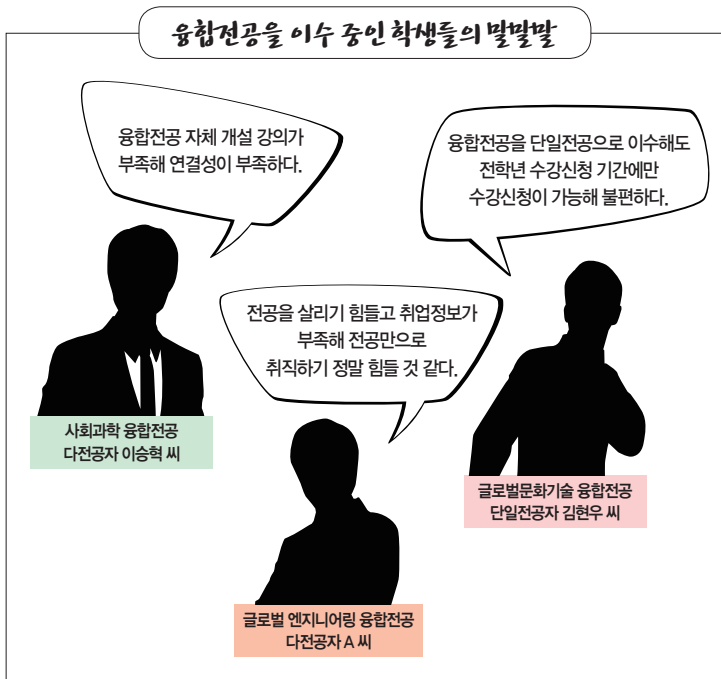
시리즈-융합전공 7년, 현황 점검 1회: 융합전공, 무엇이 문제인가

#학과 간 연계전공을 발전시켜 학과 편제 개편 없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융합전공이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이했다. 하지만 자체 개설 강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정 부실, 불투명한 전문성 인정 여부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우리학교 융합전공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대학의 우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선 우리학교 융합전공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융합전공은 다전공제도와 달리 이수학적 기준이 낮아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융합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2개 이상의 학과를 통합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우리학교 융합전공을 살펴보면 자체 개설 강의 수 부족으로 인한 학문 간 연계성 문제, 수강 신청 문제, 문·이과 융합전공 취업 연계성 부실 등의 문제가 현존하고 있다.

우리학교 융합전공엔 ▲사회과학 융합전공 ▲과학지능정보 융합전공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공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 ▲4D아트 융합전공 ▲아트&테크놀로지 융합전공 ▲K-퍼포밍아트 융합전공 ▲실감미디어 융합전공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양자정보 융합전공 ▲우주인공지능 융합전공이 있다.

일부 융합전공 자체 개설 강의 수 0개 교육 과정 부실 지적도

우선 대부분 융합전공에 자체 개설 강의 수가 부족해 학문 간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융합전공 운영지침 제6조 5항에 따르면 융합전공의 전공교과목은 최소 2과목 이상 최대 5과목까지 신설해 운영한다. 해당 지침의 전공교과목은 융합전공의 자체 개설 강의를 말한다. 자체 개설 강의를 제외한 다른 과목은 융합전공 주관학과와 참여학과의 과목 중 일부로 구성된다. 그러나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

전공 자체 개설 강의 수는 0개였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융합전공 역시 캡스톤디자인과 졸업논문을 제외한 자체 개설 강의 수는 1~2개에 불과했다.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 지도 교수 김상욱(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자체 개설 강의 수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신입 교수 초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어학과 데이터를 동시에 연구한 분들을 초빙하기에는 학교 사정상 힘든 상황”이라며 “다음 학기 내로 학교에 신입 교수 초빙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학교에서 공채를 내도 그런 분이 실제로 지원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언어를 공부하는 외국어대와 숫자를 공부하는 공과대학의 융합은 다른 학문의

융합에 비해 자유롭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과학 융합전공을 다전공하고 있는 이승혁(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3) 씨는 “시행세칙에 적혀있는 과목 중 열리지 않는 과목도 존재하고, 융합전공 자체 개설 강의가 별로 없어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졸업논문까지 포함하면 자체 개설 강의 수가 2개 뿐이라 해당 강의 수를 늘려 과목 간의 연결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글로벌문화기술 융합전공 2023) 씨는 “자체 개설 강의가 없어 융합전공의 이점을 느끼기 힘들다”며 “현 융합전공의 취지에 맞게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신설돼 전공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융합전공 강의 수강신청도 어려워

융합전공 교육 과정 내의 과목을 수강신청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했다.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과 K-퍼포밍아트 융합전공은 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단일전공으로 이수 중인 학생은 본인 학년 수강신청 날짜가 아닌 전학년 수강신청에만 가능했다.

해당 문제에 대한 학교 측의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의 주관학과인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행정실은 “해당 문제는 학과 행정실이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우 씨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와 소프

트웨어융합학과가 합쳐져 교육과정에 있는 컴퓨터공학과 수업을 신청하려 했지만, 현재 이수 중인 융합전공이 컴퓨터공학과가 참여한 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학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행정실에 문의했지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행정실 모두 해결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이과 융합전공 전문성 인정 여부 의문 취업 연계성 부실 우려도

학내 설치된 융합전공이 취업 연계성 부실로 이어지기도 한 상황이다. 러시아어학과, 스페인어학과, 프랑스어학과와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를 연계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공은 해당 전공을 이수하면 인문 공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토목공학사 학위가 나오므로 차별점이 존재한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공을 다전공하고 있는 A 씨는 일자리 부족과 정보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공은 기술 번역가를 양성하는 전공인데 해당 직업은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해 전공을 살리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해도 인건비 문제로 현지인 번역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해당 일자리 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해 해당 전공만으로는 취직하기 정말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